

다네. 하지만 침묵을 지킬 때면,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치켜 올라간 그 눈매와 입매가 어떤 예민한 감수성을, 아니 가만 보면 어떤 가벼운 애수까지도 표정으로 말해주고 있었어. 폴로 말하자면, 그 아이에게서는 매력적인 소년미가 풍기는 와중에도 벌써부터 사내다운 기질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지. 비르지니보다 큰 키에, 얼굴색은 좀 더 거무스름했고 코도 좀 더 뽕족한 매부리코를 하고 있었는데,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 아이의 눈은 붓털처럼 생긴 긴 속눈썹이 그 주위로 뻗어나가면서 지극히 부드러운 인상을 주지 않았더라면, 약간 오만한 눈빛을 띠었을 지도 모르겠네. 폴은 항상 쉬지 않고 몸을 움직였지만, 여동생이 나타나기만 하면 얌전해져서는 곧 그 아이 곁으로 가서 앉아 있곤 했지. 서로 한마디 말도 없이 식사를 마치는 일도 왕왕 있었다네. 두 아이의 침묵에, 그 몸가짐의 천진함이며 맨발의 아름다움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흡사 니오베의 자식들● 뉘엿뉘엿을 본떠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고대 군상을 보는 것만 같았을 걸세. 하지만 서로 시신을 맞출 궁리만 하는 두 아이의 눈빛과, 한결 더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는 두 아이의 웃음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성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생각을 앞세워 감정을 전할 필요도 말을 앞세워 애정을 표현할 필요도 없는 그런 천국의 아이들, 그런 축복 받은 영혼을 떠올리게끔 했을 거야.

---

● 프랑스의 옛 길이 단위로 1피에(pied)는 약 0.3248m.